



고산농협, 폭설피해 축산농가 위로금·물품 전달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은 지난달 31일 설 명절 기간에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게 재해위로금 및 지원물품을 전달하였다.

지난 설 명절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29일까지 내린 폭설로 축사가 붕괴 되는 피해를 입은 조합원은 가족 모두가 설 명절도 못한 채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복구가 쉽지만은 않다고 심경을 토로하였다.

손병철 조합장은 “늘어나는 자연재해로 조합원의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마음이 무거워져 피해가 발생한 조합원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위로금 및 지원물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폭설피해를 입은 조합원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 하며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원주=염재복 기자



옥외광고협회 남원지부, 남원시에 성금 기부

남원시는 옥외광고협회 남원지부(지부장 박효근)에서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상생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협회 남원지부는 회원들이 사업체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박효근 지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원 자치행정국장은 “남원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성금은 남원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춘향로타리클럽, 대강면에 생필품꾸러미 전달

남원시 대강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3일, 춘향로타리클럽(회장 김유숙)에서 생필품꾸러미를 50상자를 전달해 왔다고 2일 전했다.

생필품꾸러미는 화장지, 라면으로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유숙 회장은 “지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나 나눔활동을 실천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종표 대강면장은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애써주시는 남원춘향로타리클럽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남원시에 성금 기탁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공은태, 광정화)가 지난달 23일 남원시청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지원하고 전봉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순환, 안전 캠페인,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공은태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내 52명의 신임 소방관 힘찬 출발

6개월 교육과정 마치고 도민 안전 지킬 새 소방관 탄생... 책임감 · 사명감 다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달 31일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에서는 6개월간의 전문 교육과정을 성실히 마친 52명의 신임 소방공무원이 임명장을 받고 새로운 소방관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신임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정보통신, 항공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용식은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되어 신임 소방관들의 각오와 책임감을 가족과 공유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가족과 동료들은 신임 소방관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한 신임 소방공무원은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새로운 주역이다”고 말하며, “어떤 순간에도 침착함과 용기를 잃지 않고,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소방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오만호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챌린지

심덕섭 고창군수가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 챌린지(Go Beyond, Create Harmony,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작으로 국내 후보 도시 최종 발표 시점인 2월 28일까지 릴레이 지목형과 자유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최영일 순창군수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심덕섭 고창군수는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은 이미 1997년 무주동계유니버



고창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챌린지 동참을 부탁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다음 주자로 조민규 고창군의장과 오철환 고창군체육회장을 지목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보건소, 요실금 의료기기 무료 대여사업 본격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에서는 요실금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요실금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요실금이란 노년층에 흔히 발생하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 나와 위생적·사회적 불편을 발생시키는 질환으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히 떨어뜨려 질환 자체의 치명성보다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암(social cancer)이라고도 불린다.

이에 남원시는 2024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도내 유일하게 선정되어 요실금 환자에 대한 치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여는 소득이나 나이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3개월간 무료로, 대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남원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보건팀(630-620-77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까지 요실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 장수읍자율방범대 제78회 ‘베스트자율방범대’ 인증패 수여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는 최근, 장수읍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제78회 베스트자율방범대’로 선정된 장수읍자율방범대에 인증패와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베스트자율방범대 인증패 수여식에는 경찰서장, 군의장, 장수읍장,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 자율방범대 도연합회장(경세광), 군연합대장(안용국)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장수읍자율방범대(대장 김영국)는 4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경찰서와 범죄 취약지역 합동순찰, 학교폭력·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지역행사 안전관리, 학



생·노인 심야시간대 안심기가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정되었다. 베스트자율방범대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주관하여 활동이 우수한 자율방범대를 분기별로 선발·포상하여 경찰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김홍훈 장수경찰서장은 “항상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 해주시는 자율방범대에 감사드리며, 장수경찰서도 자율방범대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응급처치강사봉사회,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응급처치강사봉사회(회장 이병희)가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써달라며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응급처치강사봉사회 이병희 회장은 “강사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모금에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법을 널리 보급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봉사회는 작년 한 해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1만1,740명의 안전교육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김재훈 기자



그린환경건설, 남원시 도동동에 성금 기부

남원시 도동동 관계자는 (유)그린환경건설에서 현금 5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단발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온 활동으로, 그린환경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년자 도동동장은 “(유)그린환경건설의 꾸준한 나눔이 지역사회의 희망과 온기를 더해주고 있다며, 성금은 1일1기구 찾아가는 소통행정과 연계하여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농협, 다문화가정 조합원자녀 책가방 전달

무주농협(조합장 박동열)은 지난달 31일 무주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조합원자녀 31명에게 책가방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을 둔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달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희망찬 학교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동열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촌 다문화가정이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대비반 개강

김제시(시장 정성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는 2025년 제회 검정고시 응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졸 검정고시 대비반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학업을 중단한 9세에서 24세 이하의 김제시 및 부안군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센터를 방문에 신청할 수 있다.

학교밖청소년 고졸 검정고시 대비반 모집 홍보를 진행한 결과, 총 12명의 청소년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대비반은 오는 2월 11일 개강해 6주간 진행되고 참여자에게 교재, 인터넷 강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비반 참여를 앞둔 한 청소년은 “혼자 공부하기 막막했는데 대비반에 참여하여 수업을 듣고 지원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는 검정고시 대비반 지원 외에도 상담, 자기계발, 자격증 취득, 건강검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제=곽태기 기자